

20만 금속노련!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존중 실현!
노동대전환!

희망과 도전



2025년 12월 19일(금) 제532호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 발행인: 김준영 | 편집인: 박용락 |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한국노총 804호 T)02-6277-2000 F)02-6277-2011 <http://metall.or.kr>

계엄 1주기를 맞아 다시 보는 ‘초혼: 우리들의 노래’



금속노련과 (주)제이오엔터테인먼트코리아는 영화 ‘초혼: 우리들의 노래’ 상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초혼: 우리들의 노래’는 지난 5월 금속노련 주관으로 특별상영회를 개최한 바 있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에 새로운 장면과 음악, CG를 보강한 리마스터링 버전이다.

1990년대 초, 삼형공업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두고 그들과 함께 뜨거운 함성을 외쳤던 대학교 노래 동아리 들꽃소리 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초혼: 우리들의 노래’는 개봉 전부터 공동체 상영으로 볼 수 있다.

*문의 : 금속노련 이효원 홍보부장(02-6277-2009)

제7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 ... 금속노련 조합원 수상 영예

12/16(화) 14시, 한국노총 5층 여율리에서 ‘제7회 난생처음 노동문화제 시상식’이 열렸다.

‘노동: 마주하고, 마주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공모전은 동영상, 노동수기, 포스터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지난 8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총 250여 편의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일반인 심사를 거쳐 동영상 부문 6명(팀), 노동수기 부문 9명, 포스터 부문 5명(팀) 등 총 20명(팀)이 수상했다.



이 가운데 SK하이닉스청주노조(위원장 고상남, 충북)의 강은수 조합원과 금속일반노조 올품지부(지부장 윤현철, 구미)의 께오짚타 조합원이 각각 노동수기 부문 1등과 조합원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강은수 조합원의 작품 <가장 밝게 빛나는 별>과 께오짚타 조합원의 작품 <준비실의 꽃 “현수”>는 한국노총 뉴스페이지 ‘노동과 희망’ (<http://news.inochong.org>)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휴먼티에스에스노조, 15년 무노조 깨고 노동조합 설립



12/18(목) 13시 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삼성에스원의 100% 자회사인 휴먼티에스에스노동조합(위원장 홍순혁)의 설립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노조 설립은 회사 창립 이후 15년 동안 이어져 온 일방적 경영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됐다.

휴먼티에스에스는 그동안 노사협의회의인 ‘한사랑협의회’를 통해 회사가 결정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 특히 지난 6월, 포괄임금제를 실시간근로제로 변경하며

임금체계를 개편한 이후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결정적으로 사측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서 작성 일정을 앞당기며 졸속으로 절차를 강행하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노동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했다. 이날 오전, 노조는 총회를 통해 홍순혁 위원장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공식 출범했다.

지지·연대 발언에 나선 금속노련 박용락 사무처장은 “회사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노사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며 “금속노련은 오늘 역사적인 설립으로 시작한 휴먼티에스에스 노동자들의 든든한 벗이 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신용교 위원장은 “비록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누어져 있지만 휴먼티에스에스 노동자들도 에스원의 한 가족”이라며 “어렵고 힘들 때마다 휴먼티에스에스노조의 든든한 지지자, 후원자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삼성연대 오상훈 의장은 “오늘은 70여 년간 무노조 경영으로 상징되어 왔던 삼성그룹 역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날이자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의 용기와 연대가 만들어낸 값진 결실”이라면서 “삼성연대는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에 부응해 삼성 자회사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노동3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휴먼티에스에스노조는 삼성연대 가입·인준식을 가졌다. 이로써 삼성연대에 소속된 13번째 노조가 된 휴먼티에스에스노조는 금속노련과 삼성연대의 깃발 아래 본격적인 현장 투쟁과 교섭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끝으로 휴먼티에스에스노조 홍순혁 위원장은 투쟁 결의를 담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별 노동자는 힘이 없지만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면서 “회사는 지금이라도 불이익변경 절차를 중단하고 노동조합을 진정한 대화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화시스템노조 기자회견 개최 ... 사측에 임원 겸직 해제 및 책임경영 촉구



금속노련 한화시스템노동조합(위원장 이성중, 경기)은 12/19 (금) 14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주요 임원의 계열사 겸직을 즉각 해제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금속노련 김준영 위원장과 박용락 사무처장, 한화시스템노조 이성중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사무처 동지들이 참석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준영 위원장은 “한화시스템의 미래와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지배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잘못된 결정들을 하고 있는 한화시스템에 대해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제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가금의 일부를 손해 보고,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돈을 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올바른 입장과 역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시스템노조 이성중 위원장은 “사측이 오는 12월 24일까지 성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합원 총회를 거쳐 쟁의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화시스템 노동자들의 노동 가치를 지키기 위한 끝장 투쟁을 천명했다.

끝으로 한화시스템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표이사 및 주요 임원의 겸직 즉각 중단 및 책임경영 △겸직으로 인한 경영 부실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책 수립 △회사 실적과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를 반영한 합리적 임금인상 △투명한 경영정보 공개 및 실질적 노사협의 재개 등을 요구했다.



금속노련 카카오톡 채널

우측 QR코드를 스캔하고 채널 홈에서

우측 상단 노란버튼 클릭!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efkmtu>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efkmtu>